

# 보존과 전승의 방법: 연변지역 한민족 역사유적지의 스토리텔링개발 및 교육적 활용

김 해 영\*

- I. 머리말
- II. 연변지역 한민족 사적지의 원형 소재
  - 1. 연변지역의 한민족 사적지
  - 2. 조선족 역사유적지의 가치 및 활용
- III. OSMU를 통한 조선족유적지 스토리텔링콘텐츠 개발
  - 1. OSMU(One Source Multi Use)와 스토리텔링의 개념
  - 2. 살아 있는 조선족 역사유적지 만들기
- IV. 역사유적지 스토리텔링콘텐츠의 교육적 활용구조
  - 1. 역사유적지의 교육적 활용 공간
  - 2. 역사유적지의 교육적 활용 구조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연변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한민족 항일사적지 보존과 전승의 방법에 대한 성찰로써 OSMU(One Source Multi Use)를 통한 스토리텔링콘텐츠 개발 및 교육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진행되었다. 역사유적지 원형의 보존에 대한 강화와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전승은 역사유적지를 문화적 자원으로 살려내는 관건이다. 역사유적지는 과거의 산물이지만 그것을 현재

\* 중국 연변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부교수, 교육학 박사 / jinhaiying1265@hanmail.net  
DOI URL: <http://dx.doi.org/10.18399/actako.2017..66.005>

와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화제로 활용할 때야만 생명력이 생성된다. 이 과정은 반드시 보다 타당한 개발과 적절한 교육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원인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널리 보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변은 과거 북간도라고 불리던 곳으로 19세기 이래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한 지역이기도 하며 현재 역시 조선족의 주요 집거지이다. 약 150년의 이주, 정착의 역사를 거쳐 오면서 조선족은 수많은 삶의 자취를 남겼고 이는 오늘날 유적지로 남아 조선족 역사의 산증인으로 되었다. 그것은 오늘날 조선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장 실증적인 원형이며 그 보존과 전승은 조선족의 역사를 재확인하고 지속시키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역사유적지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는 것이겠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변지역 한민족 역사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전승의 방법으로 스토리텔링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콘텐츠를 교육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 구조를 제시하였다.

◆ 주제어

조선족; 역사유적지; 스토리텔링; 교육

## I. 머리말

역사유적지 원형의 보존에 대한 강화와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전승은 역사유적지를 문화적 자원으로 살려내는 관건이다. 역사유적지는 과거의 산물이지만 그것을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아차리고 화제로 활용할 때에만 생명력이 생성된다. 이 과정은 반드시 보다 타당한 개발과 적절한 교육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원인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널리 보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변은 과거 북간도라고 불리던 곳으로 19세기 이래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한 지역이기도 하며 현재 역시 조선족의 주요 집거지이다. 약 150년의 이주, 정착의 역사를 거쳐 오면서 조선족은 수많은 삶의 자취를 남겼고 이는 오늘날 유적지로 남아 조선족 역사의 산증인으로 되고 있다. 그것은 오늘날 조선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장 실증적인 원형이며 그 보존과 전승은 조선족의 역사를 재확인하고 지속시키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역사유적지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치 있는 것이겠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의 가치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시대, 지식경제시대, 디지털시대, 문화콘텐츠시대라는 다양한 생산적인 키워드와 함께 오늘날 사회의 혁신은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도 거대하다. 일종의 천지개벽의 혁명인 셈이다. 지나친 가상세계의 발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생태계를 포함한 “자연스러움”을 구현하기 위해 인위적인 노력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조선족사회는 이와 같은 시대성을 배경으로 신속히 탈농경화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 농경사회의 자연스러운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전승의 기능을 급속히 상실해가고 있다. 이제 그들은 반드시 의식적이고도 목적적이며 인위적인 노력을 거쳐야만 그들 자체가 만들어낸 문화유산들을 보존하고 전승할 수 있게 되어버렸다.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조선족은 탈농경사회의 노력과 함께 불과 30년 사이 세계를 향한 이산을 시도하였고 이는 조선족의 정체성이 커다란 도전을 받는 결과를 만들

어냈다. 조선족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가열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조선족은 희미해져가는 정체성을 회복 또는 재확인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스스로의 문화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가장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조선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유적지에 대한 고찰과 그것을 통한 역사적 실재와의 소통노력은 아쉽게도 그리 많지 않았다.<sup>1)</sup>

역사유적지의 보존 및 개발과 활용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수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에서 한반도로부터 연변을 거쳐 아얼산(阿爾山), 만주리를 통해 몽고 및 러시아로 이어지는 경제랑에 연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에 맞춰 연변은 2015년 고속철 개통으로 모든 교통수단을 갖추게 됨으로써 더욱 활발한 국제적 요충지로 된 셈이다. 연변을 찾는 관광객이 해마다 늘고 있고 그에 따른 관광 상품의 빈약은 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그런가하면 연변은 또한 중국 조선족 또는 남북 한민족의 소통의 장으로 활약하고 있는바 언어와 문화가 가장 큰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남북 한민족 또는 중국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조선족이 향후에도 지속적인 공동언어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연변의 역사유적지에 대한 개발 및 활용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건은 역사유적지를 보존, 개발하고 활용하는 루트를 찾는 것이다. 크게 두 가지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직접적인 경제적 투입을 통한 관광자원으로의 개발이다. 이 부분은 상당한 재원이 든다는 것과 유적지 보호라는 차원보다 관광객의 수요에 따른 유적지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나아가 경제적인 창출을 원하고 있어 자칫 유적지의 원유의 의미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다른 하나는 바로 교육적 활용을 통한 유적지 보호와 개발 및 전승이다. 대외적으로 연변이 조선족의 역사적 실존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임을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더욱이 조선족 자체에게 그 역사를 확

---

1) 주성화 외. 『독립운동의 성지 간도를 가다』. 고양: 산과글, 2014; 김동선. 『겨레의 넋』.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2010; 김철수. 『연변항일사적지 연구』,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2002; 연변주정협편찬. 『연변문사자료집』. 1988.

인시켜주는 작업이 매우 필요하다. 조선족의 경우 별다른 종교적인 의탁이 없이 교육을 중심으로 연변 나아가 중국이라는 곳에서 자리매김을 한 민족이다. 교육은 그들이 정신적 지주이자 정체성을 유지하는 수단, 그 내용은 곧 조선족이 살아온 삶의 실존적 흔적들로 엮어져야 하는바 역사유적지는 그 내용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 할 수 있겠다. 역사유적지에 대한 교육적인 보존 및 전승과 활용은 경제적인 활용에 비해 그 창출이 더디고 분명하지 않은 반면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장점이 있다. 여기서는 주로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 유적지를 통한 역사와의 대화, 역사와의 대화를 통한 조선족 미래세대의 정체성교육, 정체성교육을 통한 조선족 장족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말하자면 이 글에서는 연변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조선족 역사유적지에 대해 고찰하면서 조선족의 역사적 실존을 재확인하고 그 보존과 전승의 방법론으로써 OSMU(One Source Multi Use)를 통한 스토리텔링콘텐츠 개발 및 교육적 활용구조를 제시함으로써 미래 조선족의 실존을 기획하고자 한다.

## II. 연변지역 한민족 사적지의 원형 소재

유적지는 문화유산의 한 부분으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인공의 소산 또는 자연의 결합 소산 및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구역에서 역사상·관상상·민족학상 또는 인류학상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는 유산”이다.<sup>2)</sup> 중국에서는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또한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로 구분하는데 유적지는 유형문화유산 또는 물질문화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인류활동의 유적(遺跡)을 가리킨다.

---

2) 김홍식·류용재·김진형. 「경기도 문화유산의 스토리텔링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10, 2010: 26.

조선족이 연변지역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명말청초이후의 일로 불과 4세기 남짓하고 본격적인 이주, 정착 및 생산 활동을 시작한 시기가 19세기 중반이후이므로 불과 150년이다. 이렇게 볼 때 조선족의 역사유적지 관련 개념은 고고학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조선족 활동의 유적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며 이 글에서는 해방 전 조선족이 연변에서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유적지들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표 1〉 조선족 역사유적지 일람표<sup>3)</sup>

지역	역사유적지
용정	서전서숙, 대성중학교, 용정지명기념비 및 우물터, 일송정, 용문교, 간도 총영사관 옛건물, 15만원 탈취사건 기념비, 5·30 폭동 지휘부 옛터, 3·13 반일집회유적지 명동학교, 운동주생가, 명동교회, 문익환 집 옛터, 규암재, 김약연묘소, 주덕해옛집터, 송몽규생가 김창길문학비, 운동주가묘, 송몽규묘소, 한낙언기념비, 강경애기념비, 심연수시비 비암산, 대포산, 선바위 장암동참사유적기념비, 정동서숙, 정동학교 옛터, 창동학교 명신여학교, 제창병원옛터, 은진중학교옛터, 동산교회옛터, 광명학원, 김약연용정옛집터, 용정광명실천여학교농장옛터, 히다카헤이지로옛집터, 광명실천여학교옛터, 조선은행용정회령지행용정출장소건물유적, 용정중앙교회 옛터, 용정촌지부옛터, 민성보사옛터, 동흥중학교옛터
연길	연길감옥탈옥기념비, 수변루, 창동학원
화룡	청산리대첩 기념비, 백운평마을, 대중교 삼종사 묘소, 약수동항일유적지
도문	봉오동반일전적지, 홍범도, 백년부락
왕청	라자구전투유적지, 소왕청(마촌)항일유격근거지옛터, 이다소학옛터
안도	내두산 항일근거지, 대전자 항일전적지

3) 여기서 제시하는 조선족 역사유적지는 간도 유적지 관련 책인 『독립운동의 성지 간도를 가다』(2014)와 최근 조선족인사들에 의해 새롭게 발굴되기 시작한 유적지, 세계한민족문화대전(중국편)(www.okpedia.kr)의 연변지역 사적지를 중심으로 정리된 것이다. 주성화, 김혁 등 신문방송교육문화계의 9명 인사들로 이루어진 “중국조선족역사문화답사팀”이 2010년 8월 28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유적지를 답사하고 기록하여 2014년 8월에 출판한 책이다.

## 1. 연변지역의 한민족 사적지

세계한민족문화대전(중국편)(www.okpedia.kr)에서는 이주, 생활문화, 항일 독립, 교육으로 구분해 중국의 사적지들을 분류하였다. 이 글에서는 스토리텔링이라는 방법론을 채용하기 때문에 조선족의 역사적 시원으로부터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사료에 따라 중국의 조선족 선조들이 처음 이주했을 당시의 개척 및 생활에 관한 유적지, 그들이 가장 신앙했던 교육에 관한 유적지, 그리고 그들이 개척한 땅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항일의 유적지, 과연 누가 이런 노력들을 했는지 등으로 구분을 한다. 물론 여기에는 다소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감안하기로 한다. 따라서 <표 1>과 같이 지역에 따라 정리된 유적지들을 다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한민족 개척의 기록: 이주생활유적지

조선족은 19세기 중반이후 본격적으로 연변에 이주, 정착하여 살았다. 당시 연변지역은 200년 가까이 지속된 청나라의 봉금령으로 인해 인적이 드물고 밀림이 우거져 전혀 개척이 되지 않은 곳이었다. 하지만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남안의 조선인들에게 있어 연변지역은 보물창고와도 같은 곳이었는데 부령, 무산, 회령, 종성, 온성, 경원 등 조선 함경북도 육진지역의 농민들은 몰래 이곳으로 잠입하여 삶의 터전으로 개척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들의 개척은 황무지를 농지로 개간하는 것과 연변에서 벼농사를 성공한 것 두 가지로 요약된다.<sup>4)</sup>

조선 이주민들의 연변지역 개척과 이주생활의 역사적 실존을 반영하는 유적지가 연변에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비록 많은 유적지들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인쇄물이나 그림 및 사진 속에 남겨졌지만 실제 그 지역이 아직도 확인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유적지들은 다수 있다.

---

4) 조선인들의 이주사에 관해서는 손춘일의 『중국조선족이민사』(상해: 중화서국, 2009), 현규환의 『한국유이민사』(서울: 語文閣, 1967)를 참조.

첫째는 용정 개산툰 선구촌(船口村)의 사이섬(間島)유적지이다. 이곳은 두만강에 자그마한 모래섬이 생기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조선인들이 이주하기 전까지 이곳은 섬이었다기보다는 두만강바닥에 장기간 진흙과 모래가 쌓이면서 형성된 모래톱이었다. 조선인들이 강을 건너와 이곳을 농지로 일구어 농사를 짓게 되면서 북쪽으로 물도랑을 만들면서 이곳은 섬이 되었던 것이다. 이곳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섬이 새겨진 돌비석을 세웠었는데 2003년 누군가에 의해 파손되었고 지금은 비석자리만 남았다.<sup>5)</sup>

둘째는 용정지명기원 용두레 우물터와 용문교 유적지이다. 이주 초기 조선인들은 용정을 ‘육도구’라고 불렀는데 육도하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었다. 1886년에 조선인이 우연히 우물을 발견하고 용두레를 설치하였는데 “용”자와 우물 “정”자를 합쳐 얻어진 이름이 용정이다. 1900년부터는 육도구와 용정이라는 지명을 혼용했고 1931년 만주사변이후로는 정식으로 용정촌이라 했다. 물론 용정의 지명과 관련해 또 다른 설도 있지만 지금의 용정 우물터의 “용정지명기원지정천(龍井地名起原之井泉)”비석은 1934년 세워져 지금까지 보존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용문교는 1917년 목재구조로 건축되었는데 그 후 수차 재건축되면서 오늘날도 용문교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셋째는 명동 유적지이다. 명동은 그 자체가 유적지라 할 정도로 이주 초기 조선인들의 삶의 흔적이 다분한 곳이다. 이곳에는 현재 다음 내용에 다룰 명동학교 터 외에도 명동교회 건물, 운동주 생가가 복원되어 있다. 명동교회와 운동주 생가는 바로 옆에 나란히 하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이 용정을 다녀갈 때 반드시 거치는 필수코스이기도 하다. 이곳은 연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조선민족 독립운동의 책원지이기도 했다.<sup>6)</sup>

넷째는 백년부락 유적지이다. 백년부락은 도문시 월청진의 두만강 변에 자리잡은 작은 마을이다. 이 마을에는 19세기 말엽 한 가족이 두만강 남안으

5) 서대숙, 『간도 민족독립운동의 지도자 김약연』, 서울: 역사공간, 2008: 40-41.

6) 명동에 관한 이야기는 다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문영미, 문영금의 『고만네와 기린잡이의 꿈』(서울: 삼인, 2006)이 비교적 대표적이다.

로부터 기와와 같은 집짓는 자재들을 운반하여 지은 백년이 된 기와집이 있다. 이 기와집은 조선인 이주 및 생활의 흔적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다.

그런가하면 이주 조선인들에게 각별한 의미를 가지는 유적지는 바로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일송정 유적지이다. 비암산 벼랑 끝에 두 그루의 아름드리 소나무가 바위에 뿌리내린 모습이 청기와를 얹은 정자와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 일송정이었는데 조선인 농민들은 여기서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는가하면 여인들은 일송정 바위를 기자석(祈子石)으로 간주하기도 했다.<sup>7)</sup>

그 외 용정 주변의 산들도 이주초기 조선인들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어 유적지로 봐도 무방하다. 이를테면 비암산, 대포산, 선바위 등 곳은 중학생들이 즐겨 찾는 소풍지였다. 또한 수많은 조선인들의 삶을 입증한 곳으로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유적이 되는 곳이다.

## 2) 한민족 문화전승의 기록: 교육유적지

교육에 대한 이주 조선인들의 애착은 종교적 신앙 못지않게 강했다.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녀교육을 시킨다”는 조선인들의 강경함은 교육에 대한 그들의 소신과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연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조선인들의 교육유적지는 이를 잘 입증해주고 있다. 그 유적지들은 일부는 그대로 건물까지 복원하였는가하면 일부는 터만 남아 기념비가 지키고 있고 나머지 일부는 표식조차 없이 간신히 대략적 위치를 추정하는 정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오늘날 조선족을 비롯한 조선민족의 후손들에게 중요한 문화유산이다.<sup>8)</sup>

우선, 명동학교와 대성중학교는 원형을 살려 복원된 모습으로 조선족 교육의 역사를 확증해주고 있다. 명동학교는 1908년 설립된 명동서숙에서 시작되었다. 1899년 중성, 회령 일대에서 김약연을 비롯한 네 가문 142명의 조

7) 주성화 외. 『독립운동의 성지 간도를 가다』, 고양시: 산과글, 2014: 28.

8) 일제의 간섭이 시작된 후 연변을 포함한 동북조선족 교육에 관한 내용은 박금혜의 “일본의 동북조선족에 대한 식민주의 교육정책”(연변대학출판사, 2008)를 참고.

선인들이 불굴라재로 집단이주해 왔다. 그들은 명동이라는 조선식 이름을 지어 불굴라재를 대체하였고 여러 마을에 나누어 살면서 학전을 떼어 내어 교육준비를 하였는바 1901년에는 규암재, 소암재, 오룡재라는 세 서당을 차려 후대교육을 시작하였다. 1908년 설립된 명동서숙은 바로 이 세 서당을 통합하여 설립한 것이다. 명동학교는 해방 전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다가 조선족 농촌의 학생 원천 부족으로 폐교되었다. 그러나 명동학교는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하여 연변지역 조선인교육의 역사를 실증해왔다. 지금도 원 명동학교 기초자리에 복원된 명동학교와 명동학교 옛터 기념석이 명동촌의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운동주, 문익환, 송몽규 명동학교에 얽힌 이야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명동학교 유적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품고 역사를 지키고 있다.

대성중학교의 옛 건물은 용정중학교 대문 옆에 자리하고 있다. 대성중학교는 1921년 8월에 설립되었고 초기에는 공맹교육을 위주로 하다가 공산주의 교육으로 전환된 학교이다. 지금 이 학교의 건물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가하면 또 운동주 교실이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고 건물 앞에는 운동주 시비가 세워져있다. 또한 이층에는 역사박물관과 이상설기념관이 있어 이곳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성중학교 역시 수많은 간도 조선인 관련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 조선족의 살아있는 역사백과전서와 같은 곳이다.

다음은 비석만 쓸쓸히 남아 옛터를 지키고 있는 교육 유적지들이다. 대표적으로 서전서숙, 창동학원, 정동학교, 은진중학교, 광명학원 등 학교들이다. 서전서숙은 1906년 독립지사 이상설에 의해 설립된 첫 민족교육기관이다. 그러나 일 년 만에 이상설의 출타, 일제의 간섭 등 원인으로 문을 닫게 되지만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양성하고 연변 조선인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학교이다. 서전서숙의 옛터는 지금의 용정실험소학교 울안에 있는데 심련수 시비와 함께 '서전서숙' 글자를 새긴 돌비석과 비문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창동학원은 1907년 민족 지사들에 의해 와룡동에 설립된 학교로 설립 3

년 후 중학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15만원탈취사건의 주역들을 배출해낸 창동학원은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양성하였다. 창동학원 원 자리는 현재 짐작으로 확인만 할 수 있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와룡동, 즉 민흥촌 제3, 4소조 뒷산 언덕에 위치해 있는 창동학원 사은기념비이다. 1935년 일제에 의해 조각된 옛터에 새 교사를 지으면서 세운 것이다.

정동서숙은 두만강 기슭의 첫 학교로 1908년에 세워졌다. 지금 용정시 개산툰진 자동촌의 마지막 마을인 후저동에 가면 산비탈 나무숲 속의 정동서숙 옛터비석을 찾을 수 있다. 그 외 행회촌(원 종성촌)에 정동학교가 있었지만 지금은 흔적이 없고 광소촌에 정동중학교 터가 남아있다. 그리고 은진중학교는 1920년 캐나다 선교사들에 의해 용정의 영국덕에 설립된 종교계 학교이다. 지금은 용정 제4중학 울안에 비석 하나가 설치되어 있다. 광명학원에 관해서는 1925년 광명회의 일본인 히다카 헤이지로가 영신중학교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1926년 광명여학교를 개교하면서 시작된다. 1934년 광명회를 재단법인 광명학원으로 바꾸고 광명여자고등학교로 개명하였는데 그 기념비가 현재 용정 북안소학교 교정, 용정중학교와의 사이에 있다.

마지막으로 흔적이 없이 짐작으로만 대략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교육유적이다. 용정의 동흥중학교(1921년)의 위치는 지금의 용정 제3중학 교정에 있었고 간도 유일한 여학교였던 명신여학교(1910년)는 당시 용정의 영국덕에 있었는데 현재로 말하면 용정 장애인협회 건물과 용정 노인대학 건물 근처이다. 그 밖에도 주성화의 책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연길 소영자의 광성학교, 용정 덕신향 창동학교, 훈춘 경신진의 동광학교 등 학교들도 그 옛터를 짐작할 수 있다.

### 3) 한민족 혁명의 기록: 항일유적지

연변은 조선인들이 피와 땀을 넣어 개척한 곳이고 그들의 교육적 정신이 스며든 곳이다. 그러한 이유로 연변을 지키고자 하는 조선인들의 노력과 연변을 통한 독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선인들의 노력이 어우러져 연변은 항

일무장투쟁의 근거지이기도 했다. 청산리대첩, 봉오동전투 등 역사유적지들은 연변에서 조선인들의 반일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산 증인이다.

3.13반일시위운동은 1919년 조선에서 일어난 3.1운동의 영향으로 용정 서전대야에서 진행한 독립선언축하대회와 함께 진행되었다. 시위 대오가 일본인 관할구인 오층대 거리를 지날 때 총격이 발생했고 애국자 수십 명이 사상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시위운동은 간도 반일운동을 무장투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뒤로 70년 후인 1990년 용정 3.13기념사업회에서는 의사 묘역을 조성 및 확장하고 기념비를 세웠다.

3.13반일시위 이후 간도지역에서는 본격적인 무장투쟁 준비가 시작되었고 바로 1920년 1월 철혈광복단의 최봉설, 윤준희 등 6명의 15만원탈취사건이 진행된다. 독립군 지원을 위한 군자금 모으기 위해 조선은행 회령 용정출장소로 송금하는 일본인의 길회선 부설비용 중 15만원을 탈취한 사건이다. 현재 이 사건의 옛터는 용정에서 명동으로 가다가 삼합방향과 백금방향이 갈리는 곳, 백금방향 길 어귀 산기슭에 있다.

청산리대첩은 북로군정서 및 홍범도 부대 등 독립군이 1920년 10월 21일부터 약 일주일간 화룡현 청산리 일대에서 일본군 아즈마지대와 치른 10여 차례의 격전을 아우르는 전투를 말한다.<sup>9)</sup> 현재 청산리대첩 기념비는 청산리 마을 언덕 위에 위치해 있다.

봉오동전투는 홍범도를 주역으로 하는 의병부대가 1920년 6월 5일부터 7일까지 일본군과 벌인 전투이다. 발단인 삼자툰 전투, 후안산 전투를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다. 지금 이 전투 유적지는 도문 시가지 입구 반대편 산 중턱에 위치해 있다.

1930년이 가까워지면서 연변에는 공산주의 사조가 급속히 전파되었고 조

---

9) 그 가운데 완루구 전투와 고동하곡 전투는 홍범도 연합부대가 수행, 어랑촌 전투와 천보산 전투는 북로군정서 부대와 홍범도 연합부대가 공동으로 치른 전투이고 백운평 전투, 샘물골 천수평 전투, 맹개골 전투, 만기구 전투, 서구 전투 등은 북로군정서 독립군이 단독 수행한 전투이다.(주성화 외, 『독립운동의 성지 간도를 가다』, 고양시: 산과 글, 2014: 146.)

선인 공산당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1930년 5·30 참사<sup>10)</sup> 5주기를 맞아 중국공산당 연변특별지부의 계획에 따라 진행된 대규모 폭동이다. 현재 이 사건의 지휘부 옛터 기념비가 15만원탈취사건 기념비 앞 길 뒤편의 육도하 기슭에 위치해 있다.

그 외에도 장암동참안(1920년 10월 30일)유적지, 용정촌지부(1928년 2월 28일)유적지는 지금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민성보 옛터, 용정 중앙교회 옛터, 김약연 용정 자택 옛터, 운동주 용정 자택 옛터 등 유적지들은 현재 대략의 위치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일제가 남겨둔 유적지들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가운데 매우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간도 일본총영사관 건물(1926년 5월 준공)과 조선은행 용정 회령지행 용정출장소(1916년) 건물이다.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있는 간도 일본총영사관 건물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남겨둔 유적지들은 더욱 확실한 역사적 증거가 될 것이다.

#### 4) 한민족 역사의 주인공: 인물유적지

연변이 남긴 수많은 유적지들은 그 유적지들과 얽힌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 인물들은 조선족 역사를 만들어낸 주역들이다. 지금도 연변의 어느 한 언덕에 잠들어서 조선족의 미래를 지켜보고 있는 이들 역사적 주인공들과 그들의 행적을 담은 비석들은 또 다른 유적지들이다. 해방 전 조선족의 문화중심이 용정이었으므로 이들 기념비나 묘소도 용정을 중심으로 산재해 있다.

기념비를 남긴 인물들로는 강경애 기념비, 운동주 시비, 한낙연 기념비, 심연수 시비, 김창걸 문학비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문학인이면서 항일 영웅들로 연변이 낳은 인문들이다. 그런가하면 적지 않은 묘소들이 조선족의

---

10) 1925년 5월 30일 2천여명의 상해 학생이 조계지에서 일본 자본가가 노동자를 살해하고 진압하는 것에 항의해 폭동을 일으켰고 이로 인한 영국 경찰과의 충돌로 학생과 군중이 대거 사망, 부상 및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역사를 입증해주고 있다. 간도의 대통령으로 불리던 김약연의 묘소, 윤동주의 묘소, 명동주역<sup>11)</sup>들의 묘소 등과 화룡 청파호 마을에 있는 대종교 삼종사 묘소, 연길의 주덕해 기념비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주성화 등 연변 문화 인사들의 답사에 따라 정리된 책에 등장하는 유적지들로 정리되었지만 이 밖에도 적지 않은 유적지들이 산재해 있다. 왕청, 훈춘, 안도, 돈화 등 지역의 유적지들도 향후 더 검토하고 구체적인 위치를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 2. 조선족 역사유적지의 가치 및 활용

### 1) 보존과 전승의 가치

보존이란 사물의 원형, 속성, 의미, 품격 등을 지속적으로 존재하면서 손실이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일컫는다. 문화유산은 한 지역, 또는 한 민족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것인바 비대체성, 문화적 다양성과 고유성 및 지역이나 민족의 정체성 등을 포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역사유적지는 문화유산의 한 부분으로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징 외에도 매우 실증적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적지는 역사가 남겨놓은 유물로 역사적 실존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그것에 대한 보존은 역사의 현실적인 보존으로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어떤 형태로든 유적지 원형의 보존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전승이란 “전하여 계승한다”의 의미로 윗세대가 전하고 차세대가 계승하여 이어가는 것을 일컫는다. 유적지는 독특한 자체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는 그 유적지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나 공동체 사람들의 공동적인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유적지에 대한 전승은 지역의 역사와 정체

---

11) 명동은 사실 윤동주 외에도 명동을 일구어낸 김약연을 비롯한 명동오현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다. 명동오현에 관해서는 김혜영의 「북간도 명동오현의 교육사상적 연원에 관한 연구」(『민족문화논총』 5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4: 491-517)를 참고.

성을 전승하는 매우 중요한 문화자원이다.

그렇다면 조선족 역사유적지의 보존과 전승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유적지 보존과 전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지역문화의 활성화 가운데서 유적지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성찰이 보편화되지 못했고 유적지의 보호와 전승의 노력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체계적인 유적지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하나는 각 유적지들의 관리부문이 각이하고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의 노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른 하나는 복원된 유적지가 지나치게 적고 상당수의 유적지가 아직도 위치 기념비조차 없는 실정이다. 현재 연변에서 비교적 잘 복원되어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적지는 용정의 대성중학교와 명동촌의 운동주생가 및 명동학교, 일본 간도총영사관, 주덕해생가 등으로 꼽힌다.

셋째, 홍보와 활용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몇몇 관광지로 개발된 소수의 유적지 외에 다수의 유적지들은 시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대외적인 홍보나 활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 2) 개발 및 교육적 활용

지역의 발전을 촉진함에 있어 문화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문화 가운데서도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이 곧 지역의 역사를 반영해주는 유적지들로 이는 매우 손쉽게 활용될 수 있는 문화자원이다. 유적지는 본체 수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 창작이나 가공의 투입이 적다. 또한 유적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의로 인한 여러 시각의 스토리텔링 전환, 즉 다양한 장르개발이 가능하다. 쉽게 말해 유적지는 상당한 부가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문화자원이라는 것이다. 유적지의 활용은 크게 개발과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문화가 없는 개발은 매우 큰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경제성장 위주의 지역 개발은 문화적 낙후를 초래하게 된다. 경제활동에서 비롯된 환경훼손과 경관 침해 현상이 매우 심할 것이며 상업기능 위주의 중심지 개발로 지역민들의

문화적 향유기회가 박탈되고 대규모 현대식 휴양시설과 자연경관 관람 위주의 관광지 개발로는 지속적인 발전이 결국 어렵게 될 것이다. 이는 문화에 대한 교육의 부족으로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화의 교육적 활용이 부족하다는 말은 다시 문화에 대한 홍보와 보급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조선족의 문화가운데서 유적지는 그 개발과 교육이 가장 잘 되지 않은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조선족의 유적지 개발과 교육의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 개발 및 교육적 의식이 부족하다. 자원으로서의 유적지의 부가가치에 대한 인식이 박약하고 그것을 지역 내외에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인식이 아직 정부차원이나 시민차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원형 소재의 2차 가공이 부족하다. 사실 유적지의 활발한 활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나 관련 기관들의 인식부족으로 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전략적인 개발 및 교육방안과 투입의 부족이다. 연변의 경우 현재 더욱 많게는 무형문화에 대한 개발이나 투입에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투입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손쉽게 개발하고 교육할 수 있는 유적지에 대한 투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유적지의 경우 별다른 소스개발이 없이 유적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 위치와 무궁한 이야기들을 대상에 알맞게 가공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국가, 민족 또는 지역사회에서 문화적인 요소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면서 이는 점차 경쟁력 평가의 지표로 되고 있다. 소위 문화적인 요소라는 것은 유형 및 무형의 문화유산을 일컫는 것으로 이는 사회나 문화단위 또는 지역이나 민족단위의 고유한 특성이나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중요한 기제로 활약하고 있다. 이것은 때로 각각의 사회집단이나 계층의 문화적 특성을 부각시켜 차별화기제로 사용되고 다양한 매체들이 활용과정에 개입하게 되면서 점차 문화적 콘텐츠, 문화적 콘텐츠의 원형으로 통칭되고 있다. 이것이 지역적

맥락을 토대로 한 경우 지역문화콘텐츠라고 불리기도 한다.<sup>12)</sup> 따라서 지역 문화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유적지의 보존과 전승에 있어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이제 유적지와 같은 문화자원에 대한 발굴과 함께 그것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시도가 시급하다.

### III. OSMU를 통한 조선족유적지 스토리텔링콘텐츠 개발

유적지는 그 자체가 가지는 사실성과 무궁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이유에서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개발 공간이 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유적지의 개발에 대한 노력은 사실 매우 단일하게 문자 중심의 기록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인류는 이미 문자시대를 넘어 전자시대에 진입하였고 이는 인류 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적극적인 개발과 교육적 활용에 거대한 개발도구를 제공하였다. 이제 유적지와 그 스토리는 전자시대의 다양한 매체와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새롭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다. 다양한 디지털매체, web2.0, web3.0 등 인터넷 기능의 진화 등은 사람들에게 거대한 가상공간과 더욱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문화콘텐츠는 바로 유적지와 같은 문화의 원형 소재들을 다양한 매체들과의 결합을 통해 새롭게 가공한 내용물을 가리킨다. 따라서 전자시대의 문화콘텐츠 개발에 있어 스토리텔링은 매우 중요한 개발 방법론이아 할 수 있다.

#### 1. OSMU(One Source Multi Use)와 스토리텔링의 개념

---

12) 류정아.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의 이론과 실제」. 『인문콘텐츠』 8, 인문콘텐츠학회, 2013: 40.

## 1) OSMU(One Source Multi Use, 多源多用途)

OSMU는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공연, 소설, 동화, 만화,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전시, 축제, 테마파크, 교육, 데이터베이스, 음식, 의복, 디자인 등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전략을 말한다.<sup>13)</sup>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마케팅 전략으로 하나의 소스를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구현하는 수단이다. “원천소스(One Source)의 창구 다변화, 장르 전환, 관련 상품 판매, 브랜드 창출 효과 등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마케팅 활동”<sup>14)</sup>이다. 그 기본 전략은 콘텐츠를 구현하는 미디어를 중심으로 창구화(windowing) 전략, 개별 장르의 변별성 탐구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르 간 전환(adaptation) 전략, 관련 상품 및 부가 상품과 연관된 상품화(merchandising) 전략, 브랜드 창출 전략 등 실천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sup>15)</sup>

## 2)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스토리텔링은 ‘story’와 ‘tell’과 ‘ing’의 조합으로 단순한 이야기나 이야기 하기에 비해 ‘tell’과 ‘ing’의 부분이 특별히 강조된다. 이 세 요소는 통합적인 상관망(相關罔)을 구성하며 형질변환을 통해 향유자의 ‘참여중심’, ‘체험중심’, ‘과정중심’의 향유적 담화형식을 강화하고 있다.<sup>16)</sup> 사실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가장 오래된 문화전승의 방법이다. 인류역사상 이야기를 담아내는 방법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 왔는데 이는 모두 이야기를 전달하는 중간매체가 달라진 결과로 언어 중심의 구술시대, 문자와 인쇄물 중심

---

13) 김홍식 외. 「경기도 문화유산의 스토리텔링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10, 2010: 11.

14) 박기수. 「One Source Multi Use 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전환 연구」. 『한국언어문화』 44, 한국언어문화학회, 2011: 156.

15) 박기수. 「서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간 One Source Multi Use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언어문화』 36, 한국언어문화학회, 2008: 205.

16) 박기수. 「One Source Multi Use 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전환 연구」. 『한국언어문화』 44, 한국언어문화학회, 2011: 165.

의 문자시대, 디지털이 등장한 전자시대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인터넷의 빠른 진화로 인한 “인터넷+”시대의 도래는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바꾸어 놓았다. web2.0을 거쳐 web3.0까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진화를 거듭하면서 과거 관리자 중심의 업데이트 기능이 web 기능의 진화와 함께 점차 사용자 중심으로 되었던 것이다. 그것도 더욱 세분화 되어 사용자 스스로 조작할 수 있는 기능과 공간이 마련되고 있어 사용자 개개인의 정보 재구성과 신속한 확산이 매우 용이해졌다. 이를테면 싸이월드, 블로그로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톡, 위챗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야기는 인류역사상 계속 존재해온 양식이지만 전자시대, “인터넷+”시대의 도래와 함께 스토리텔링의 ‘tell’을 구현하는 기술이 발달, 매체가 다양해졌다. 구현 방식 또한 다양화, 다층화가 가능해졌고 복합감각화와 더불어 감각을 활용한 즐거움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는데 ‘tell’자체가 향유의 중심요소로 전면화 될 수 있게 되었다.<sup>17)</sup> ‘ing’의 경우 역시 향유 강화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성의 범위와 층위를 확장하고 다양화하였다. 이야기의 소재, 이야기를 구성하는 사람, 이야기를 표현하는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는 중간 매체, 이야기를 향유하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 간의 역동적인 교류와 소통이 포함된다.

종합하면 전자시대, 인터넷시대는 보다 거대한 축적 공간, 빛과 같은 확산 속도, 경제 및 교육적 부가가치 극대화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적지와 같은 문화적 원형 소재들은 다양한 매체들과 결합하여 OSMU를 통한 스토리텔링콘텐츠로 개발됨으로써 경제적 및 교육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또한 이 과정을 통해 보존과 전승의 효과를 더욱 부각할 수 있을 것이다.

---

17) 박기수. 「One Source Multi Use 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전환 연구」. 『한국언어문화』 44, 한국언어문화학회, 2011: 166.

## 2. 살아 있는 조선족 역사유적지 만들기

역사유적지의 현실적 활용 작업에서 가장 쉽게 적용되는 문구가 바로 E.H. 카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일 것이다. 유적지가 역사를 대변한다면 유적지에 문화콘텐츠의 개발은 유적지를 살아 숨 쉬는 유적지로, 현대인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유적지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론이 되겠다.<sup>18)</sup>

### 1) 연변 역사유적지의 콘텐츠 개발 실태

OSMU를 통한 스토리텔링콘텐츠 개발의 차원에서 연변의 유적지들을 살펴보면 연변의 유적지들은 무궁한 가능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채 자리지킴이 또는 망부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원형 소재는 있지만 콘텐츠 미개발 유적지

연변 역사유적지의 대부분은 이 유형에 속한다. 위치 확인용으로 기념비만 있고 원천 이야기는 인쇄물 속에 갇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외부에서 이러한 유적지들에 관심을 더욱 보이고 있다. 예컨대 15만원 탈취사건을 배경으로 한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는 이미 수년전 한국에서 제작 및 상영되어 좋은 평을 받기도 했다.

둘째, 원형 소재는 있지만 기초시설이 없는 유적지

연변의 일부 유적지는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 이야기 소재도 있지만 위치 표시를 위한 표시물이 없기 때문에 콘텐츠 개발에 앞서 위치 고증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셋째, 스토리와 시설 모두 구비되었지만 콘텐츠 활용이 잘 안 되는 유적지  
대성중학교나, 명동학교, 운동주생가, 일본 간도영사관 등 유적지들은 이

---

18) 연변 조선족문화자원의 콘텐츠 개발 관련 연구들로는 임영상(2008)의 「연변조선족의 문화중심 용정과 ‘문화루트’ 개발」(『인문콘텐츠』 13, 인문콘텐츠학회, 2008: 213-238)과 안상경(2009)의 박사학위논문 「연변조선족자치주 정암촌 ‘칭주아리랑’의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연구」(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등이 있다.

미 관광지로 개발되어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될 준비가 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활용은 아직 미비한 상태로 오히려 한국이나 기타 지역의 관광객들에 의해 다양한 형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한국 홈페이지인 다음이나 네이버의 경우 다양한 블로그에서 그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한국 학생들의 수학여행코스도 적용되고 있기도 하다.

## 2) 연변 역사유적지의 콘텐츠 개발 방법

스토리의 원형이 역사유적지라고 할 때 tell'과 'ing'은 과거와 현재의 소통과 대화이며 유적지를 살아 숨 쉬는 유적지로 만드는 매우 중요한 전환이다. 스토리텔링은 이야기의 전달자와 수용자의 역동적인 관계를 강조하면서 과거 화자를 주체로 하던 데로부터 화자와 청자가 함께 주체로 되는 상황으로 화자와 청자의 공통된 대상은 모두 이야기를 원형 소재로 하는 문화콘텐츠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OSMU의 기능을 추가할 때 다양한 화자와 다양한 청자가 등장함으로써 그 개발 및 활용 가치는 무궁무진해 질것이다. 즉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입장에 따라 어떻게든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개방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하나의 소스를 현재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멀티유즈(OSMU)하게 표현할 수 있다.<sup>19)</sup>

연변의 역사유적지를 원형 소재로 OSMU를 통한 스토리텔링콘텐츠 개발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sup>20)</sup>

---

19) 김홍식 외, 「경기도 문화유산의 스토리텔링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10, 2010: 11.

20) 이 부분은 류정아의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의 이론과 실제」(『인문콘텐츠』 8, 인문콘텐츠학회, 2013: 48)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임.

〈표 2〉 조선족 역사 유적지의 OSMU를 통한 스토리텔링콘텐츠 개발

단계	방법
역사유적지의 존재 확인 단계	역사유적지의 원형 자원: 유적지의 현재 위치 파악, 유적지 관련 사실스토리 모두 발굴, 유적지 관련 인물 및 인물스토리 발굴, 현재 유적지 관련 행사 파악,
	역사유적지의 가치 및 가능성의 원형: 지역사회와의 관계적인 맥락 파악, 자연과의 관계적 맥락 파악.
역사유적지의 스토리텔링 단계	유적지 이야기의 구성 및 활용
	자료 구축 및 데이터 베이스화
	장르 변화를 전제로 유적지 이야기를 각각의 매체에 맞게 변용
역사유적지의 스토리 멀티미디어화 단계	멀티유즈 개발과정을 통한 재창조
	성한 콘텐츠를 OSMU 시도
	홍보 및 확산 시도
역사유적지의 효익 창출 단계	멀티유즈를 통한 상품 개발 및 경제적 시너지 효과 창출
	교육적 효과 대화

#### IV. 역사유적지 스토리텔링콘텐츠의 교육적 활용구조

교육은 문화를 선택하고 전승하고 확산 및 보급하고 재생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sup>21)</sup> 문화는 반대로 교육에 대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전제이다. 특히 육안으로 확인이 빠른 물질문화는 그 교육적 효과가 매우 신속하고 직접적인 장점이 있다.장

21) 왕군. 『교육민족학』. 북경: 중앙민족대학출판사, 2007: 25-31.

## 1. 역사유적지의 교육적 활용 공간

최근 이미지시대(圖像時代)의 진입으로 인해 교육은 사실상 문자시대의 메마르고 수평적인 전달인 것이 아니라 매우 형상적이고 재미가 가미된 입체적인 내용들로 구성되는 혁신을 가져왔다. 따라서 학습자 중심의 체험학습, 참여학습, 현장학습 등이 더욱 효과적이게 되었다. 더욱이 전자시대 및 “인터넷+”시대의 놀라운 확산속도는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 또한 마련해 주었다. 이렇게 볼 때 유적지의 교육적 활용 공간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비판적 능력을 키워주며 감성적 성장을 돕는다”.<sup>22)</sup> 스토리텔링콘텐츠는 과거 교육내용과 달리 일정한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수자와 학습자가 스스로 각각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학습자의 경험, 감정과 잘 어우러져 학습자 자신만의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어 교육적 효과가 매우 탁월하다. <sup>23)</sup> 학습자들이 유적지를 통해 역사적 실재와 교감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의 문화정체성 또는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유적지는 기타 문화자원에 비해 더욱 사실적이고 현실적이며 역사적 실존을 매우 생동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원이다. 뿐만 아니라 그 교육 대상은 그 유적지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 및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체 사람들로써 교육적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 의미에서 유적지를 교육적 자원으로 개발할 때 산생되는 긍정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공동체의 정체성교육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적지의 역사적 사실성과 지역 사람들과의 역사적 유대관계는 한 지역 및 그 지역과 관련된 사람들이 스스로의 역사적 실존을 확인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

22) 고경민.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스토리앤이미지텔링』 1, 건국대학교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11.

23) 엄명자.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성교육 프로그램 구안 방향 탐구: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수산해양교육연구』 25(1), 2013: 116.

둘째, 유적지는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에 모두 관여되어 있다. 현대인들의 가정 중심의 관광, 사회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 예하면 테마공원, 박물관, 기념관 등, 학교교육의 필수 코스인 수학여행 및 지방교육과정 개발 등에 모두 활용될 수 있다.

21세기 중국의 교육개혁은 학교교육에 대한 국가, 지방, 학교교육과정 3급체제를 실시하면서 지방과 학교 당국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의 문화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평생교육을 표방하면서 지역사회의 문화자원을 지역발전의 콘텐츠로 개발할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념적,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연변의 경우 역시 적지 않은 조선족 문화에 대한 교육적 방안들을 제시하였고 조선족 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교육적 노력들을 해 왔다.<sup>2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변의 조선족 문화 교육에는 학교교육 중심이며 사회교육과 가정교육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과 유적지의 교육적 활용이 미미하다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물론 최근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의식하고 그에 따른 개선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7년 6월 3일 백년부락에서 진행된 연변청소년 시조백일장 행사<sup>25)</sup>, 2017년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용정의 윤동주묘소와 윤동주생가 등 유적지에서 진행된 다양한 행사<sup>26)</sup>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많은 시민들과 조선족 학생들이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유적지에 대한 연변조선족사회의 관심이 향상되고 있다.

윤동주, 명동, 백년부락과 같은 이미 알려진 유적지들에 대한 활용이 높아

---

24) 김혜영. 「중국 조선족학교 민족문화 교육과정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인문논총』 71(4), 서울대학교, 2014: 269-300.

25) 이 행사는 이육사 문화관과 백년부락이 후원하고 연변청소년문화진흥회, 소년아동편집부, 연변교원 시조 사랑회에서 주최한 행사로 청소년들의 시조에 대한 생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

26) 연변윤동주연구회, 용정윤동주연구회 등 민간단체들과 연변대학교 민족연구원 등 기관들에서는 2017년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학술대회, 기념독서대회, 기념백일장 등 교육적 영향력이 있는 행사들을 조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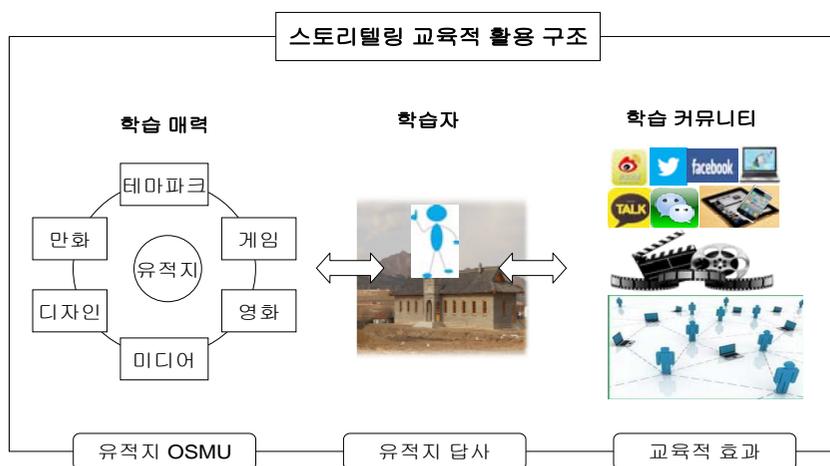
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욱 다양하고 더욱 교육성이 강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 그런가하면 알려지지 못하고 오지의 비석으로 남겨져 있는 유적지, 흔적조차 없는 유적지들에 대한 개발과 활용이 시급하다. 눈에 띄지 않는 유적지들을 경제적인 투입을 거쳐 개발하고 활용하기에는 그 재원과 노력이 지나쳐서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유적지에 포함된 이야기만 잘 개발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하는 작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투입이 적고 활용하기 용이하다. 따라서 유적지에 대한 교육적 활용 공간은 오히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다.

## 2. 역사유적지의 교육적 활용 구조

유적지를 교육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체계적인 구조가 필요, 이 구조를 적극적으로 가동해야 할 것이다. 앞서 제시했듯이 연변에서는 최근 다양한 유적지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을 하면서 교육적 활용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들은 매우 개별적이고 규범화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규칙적이다. 어디까지나 사회적인 노력으로 학교와 같은 형식적인 교육기관에서 활용하는데 여러 가지 저해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급하는데도 곤란이 적지 않다. 따라서 학교나 지역사회의 각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적지 자원개발 및 활용 구조가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적지에 대한 기초적인 투입을 통한 복원 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그 어떤 학습자를 막론하고 맞춤형의 콘텐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콘텐츠는 반드시 수많은 학습자들이 각기 부동한 시각에서 모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바 이는 OSMU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습자를 유적지 현장에 답사하도록 그 감성을 자극한다면 1차적인 교육적 효과는 달성한 셈이다. 다음 학습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빠른 확

산을 시도하면서 2차적인 교육효과를 창출하고 이는 매우 좋은 교육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교육방법과 다른 다양한 매체를 적극 동원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유적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유적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신속히 구축됨으로써 그것은 매우 효과적인 교육적 보급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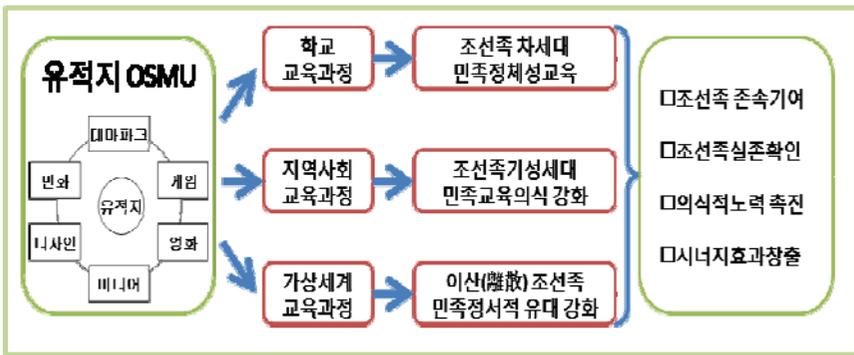


이러한 교육적 활용구조는 모든 교육대상에 모두 적용될 수 있겠지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달리 표출된다. 예컨대 중국의 경우 지역적으로 매우 광활하고 인구 또한 비범함으로 인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놀라운 축적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허다한 중국의 유적지들은 이상 구조에서 제시한 멀티유즈 개발이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현재 이미 상당한 발전을 가져온 상황이다. 그러나 조선족과 같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소수민족의 경우 자신들이 만들어 온 역사를 기억하고 전승하기 위한 노력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 어느 한 세대라도 이와 같은 역사적 기억들

을 망각할 경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조선족이 교육을 매우 열애했다는 역사적 증거는 조선족 마을마다 세워져 있었던 학교가 그것이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조선족학교 분포망이 새롭게 조정되면서 수많은 농촌학교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했고 그러한 학교옛터들은 하나 둘씩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그것 역시 조선족의 교육사를 실증해주는 매우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어떤 형식으론 그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이 현재로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가하면 의식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유적지의 경우라 해도 이상 구조에서 멀티유즈 개발의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5만원탈취사건 같은 경우는 유적지 비석과 영화만 있고 한낙연과 같은 명인들은 테마파크도 있고 책으로도 출판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자원들은 교육에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유적지는 직접적으로 선조들의 역사적 실존을 실증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때 교육대상에 대한 다양한 자극은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조선족과 같은 매우 특수한 역사적 기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유적지들이 잘 개발되어 활용될 경우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또한 적지 않다. 하나는 조선족이 역사적 실존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물을 상실하게 됨으로 인해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족 스스로가 자체의 역사적 실존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지를 중요시하지 않고 개발 및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지원을 획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점차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셋째로 유적지는 조선족의 뿌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존재로 중국 개혁개방이후 세계적인 이산을 경험하고 있는 조선족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 유적지가 제대로 개발되고 활용되지 못하는 이산 조선족에게 뿌리의식을 전달하는 경로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

래한다. 넷째, 중국 전역으로 흩어져가는 조선족 대학생들은 조선족사회를 홍보하고 조선족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미래역량이다. 유적지개발 및 활용은 그들에게 조선족사회 홍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인바 그렇지 못할 경우 그들이 조선족사회를 홍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자원을 잃는 셈이 된다. 결과적으로 유적지의 개발 및 교육적인 활용은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무작위적인 개발과 무질서한 활용보다는 보다 구조적이고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활용루트를 마련하여 장기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만 충분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유적지에 대한 교육적 활용 구조를 제시한다.



유적지 콘텐츠의 교육적 활용

## V. 맺음말

조선족은 그 어떤 형태로든 자체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역사유적지들을 보존하고 전승해야 함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선족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노력에서 그들의 역사적 실존을 가장 잘 입증할 수 있는 유적지에 대한 부분은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고 간과했던 것으로 보

인다. 이제는 보존과 전승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방법의 미숙으로 인해 방치되었던 역사유적지들을 새로운 시각과 매체를 통해 적극 발굴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즉 유적지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과 교육이 곧 유적지 보존과 전승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그 개발과 교육은 시대적 변화상에 맞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통해 문화콘텐츠로의 변신을 추구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 과정에서 OSMU를 통한 스토리텔링개발과 그것의 교육적 활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글의 핵심이다.

※ 이 논문은 2017년 4월 24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7년 5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6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고경민.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스토리앤이미지텔링』 1, 2011: 11-34.
- 김동선. 『겨레의 넋』.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2010.
- 김진철·양진건. 「유배문화 스토리텔링 연구」. 『인문콘텐츠』 35, 2015: 185-206.
- 김철수. 『연변항일사적지 연구』.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2002.
- 김홍식·류용재·김진형. 「경기도 문화유산의 스토리텔링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10, 2010: 1-138.
- 김혜영·김유리·양진건.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적용」.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 5, 2010: 261-289.
- 김혜영·김성봉.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사교육과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적용」. 『비교교육연구』 19(3), 2009: 227-247.
- 김혜영. 「북간도 명동오현의 교육사상적 연원에 관한 연구」. 『민족문화논총』 58, 2014: 491-517.
- 김혜영. 「중국 조선족학교 민족문화 교육과정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서울대학교 『인문논총』 71 (4), 2014: 269-300.
- 류정아.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의 이론과 실제」, 『인문콘텐츠』 8, 2013: 39-57.
- 문영미·문영금. 『고만네와 기린갑이의 꿈』. 서울: 삼인. 2006.
- 박금혜. 『일본의 동북조선족에 대한 식민주의 교육정책』,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2008.
- 박기수. 「서사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간 One Source Multi Use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언어문화』 36, 2008: 227-247.
- 박기수. 「One Source Multi Use 활성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전환 연구」. 『한국언어문화』 44, 2011: 155-176.
- 서대숙. 『간도 민족독립운동의 지도자 김약연』. 서울: 역사공간. 2008.
- 손춘일. 『중국조선족이민사』. 상해: 중화서국. 2009.
- 안상경. 「연변조선족자치주 정암촌 ‘청주아리랑’의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 엄명자.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성교육 프로그램 구안 방향 탐구: 문헌연구를 중

- 심으로, 『수산해양교육연구』 25(1), 2013: 113-127.
- 이효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지역문화산업의 활성화」. 『글로벌문화콘텐츠』 20, 2015: 189-208.
- 임영상. 「코리아타운 축제와 스토리텔링」. 『글로벌문화콘텐츠』 20, 2015: 209-234.
- 임영상. 「연변조선족의 문화중심 용정과 ‘문화루트’ 개발」. 『인문콘텐츠』 13, 2008: 213-238.
- 왕군. 『교육민족학』. 북경: 중앙민족대학출판사. 2007.
- 연변주정협편찬. 『연변문사자료집』. 1988.
- 주성화 외. 『독립운동의 성지 간도를 가다』. 경기도: 산과글. 2014.
- 현규환. 『한국유이민사』. 서울: 語文閣. 1967.

## Ways of preserving and inheriting: The development of Story-Telling and educational application of Korean nation's historical sites in Yanbian area.

JIN, HaiYing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Korean nation's Anti-Japanese historic sites preservation and inheritance method in Yanbian area, to put forward the development of Story-Telling and educational application by OSMU(One Source Multi Use). Enhance the prototype of the historic sites preservation and through active application of inheritance is the key to historical sites into cultural resources. The key to transform Historical sites to cultural resources is strengthening the prototype of the historic sites preservation and inheriting through positive applications. Historical sites is the product of the past, but it is only known by reality , the future and to form a subject, so that it can be created its unique vitality. This process must be in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and appropriate education structure as the backing, it is well known in order to make the cultural heritage. Yanbian is the place called North Jiandao, it's the most common place to migrate for Korean nationality since 19th century, and now is also the hub of Korean nationality. The Korean nationality have experienced 150 years history of migration, left behind the

precious heritage, and that became the site of prove the Korean history. It is the most empirical prototype to identify the Korean identity consciousness , the preservation and inheritance is the recognition and effective basis for Korean history. The existence of the historic site is valuable in itself, but if the study can find various methodologies to maximize the value of it, this will be the icing on the cake.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the preservation and inheritance of Korea nation's Anti-Japanese site methods in Yanbian area which named Story-telling, further demonstrated how to carry on the educational application problem by variety of cultural products which developed by Story-Telling.

**Key words** : Korean nation, Historical sites, Historical sites, educational application

